

연쇄살인범의 MO(Modus Operandi)에 대한 고찰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오 윤 성*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 이론적 배경 |
| III. 범죄 행각 | IV. 범행수법의 분석 |
| V. 맺는 말 | |

〈요 약〉

지금까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쇄살인범 발생이 적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영철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연쇄살인범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화성, 천안지역의 여성 납치 살해범죄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우리 주위에 비록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기회만 되면 범행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연쇄살인범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연쇄살인범의 범행수법은 특히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제2, 제3의 범행을 하기 위해 최초의 범행수법보다 더욱 진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 수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이제 연쇄살인범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생생한 살인행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쇄살인범의 MO(Modus Operandi)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 연쇄살인범, 범행수법, 범죄심리】

* 순천향대학교 법정학부 경찰행정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범죄수사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아내고 범정에 세워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과정.(김종률, 2002:16)이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일 때, 그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경찰은 살인사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통적 수사방법에 많이 의존하여왔다. 범죄현장의 잔혹성이나 금품유무에 따라 원한, 치정, 물욕에 의한 범죄인가를 판단 후 가족, 친지 등의 주변인물과 인근지역 불량배나 동일 수범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법은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효과적이었으나 연쇄살인범¹⁾에 대해서는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쇄살인범은 그 수범이 점차적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나 지금까지 밝혀진 연쇄살인범의 행동유형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범행수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쇄살인범 검거를 위해 등장한 범죄심리 분석기법은 검거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범죄의 직접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범죄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미 발생할 범죄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분석기법(곽대경, 2001: 4)으로 동일인에 의한 범죄는 공통성을 가진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죄 이전의 준비행적, 범죄행위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죄 후의 행적 등 소위 범행수범인 MO(Modus operandi : method of operation)를 파악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것이다.(박광배, 2001:33) 이러한 기법 등은 범죄자의 심리분석에 주목하는 측면인 범죄 프로파일링²⁾을 기초로 그들의 행동을 예측(Turvey, 2002)한다.

프로파일링이 적합한 범죄유형은 일반 범죄와는 달리 범죄자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행동적 성격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으로 가학적 성폭력, 사체의 절단,

1)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연방범죄수사국(FBI)의 행동 과학부를 중심으로 1970년대 부터 이루어져 왔다.

2) 범죄 프로파일링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개인의 특성을 추론해 가는 과정이다.

오욕, 장기적출, 사체에 대한 강간(시간), 무동기 연쇄 방화 등 대부분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엽기적인 범죄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 연구는 모든 인간은 개인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범죄현장에는 범죄자의 성격이 반영된다는 점, 범죄자는 동일한 MO에 의해 범행하며 동일한 서명을 남기며, 범죄자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Holmes & Holmes, 1996: 39-43)

성격이란 직접적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범죄현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인 범인의 행동적 특성을 통해 그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김용화, 2002:4)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연쇄살인범³⁾인 유영철사건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모방범죄를 비롯하여 제2, 제3의 유영철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영속적 문제점 중 하나는 최초로 경찰이 예상했었던 것을 포함하여 연쇄살인범의 범죄행동유형이 얼마나 더 변화되었는지를 인지하거나 범죄행위 유형을 인식하는 것이다.(Keppel & Birnes, 2003:7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유영철의 연쇄살인행각을 기초로 범죄자의 목적, 범행수법의 일반적 형태, 범행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연쇄살인범의 범행수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살인의 종류에는 살인의 동기가 적어도 급전이나 원한,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것 등 명확한 경우와 살인 그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정상적 살인과 비정상적 살인으로 분류한다. 피해자의 수와 살인이 발생한 현장의 수 및 동기에 의한 분류는 우선 단일살인(single homicide), 이중살인(double homicide), 삼중살인(triple homicide), 다중살인(mass homicid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일 사건, 동일 장소에서 1명이 살해되었는가, 2명이 살해되었는가, 3명이 살해되었는가, 4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 장소에서 살해되었는가 이다.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범행 장소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중살인과 다른 개념으로 분류한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 즉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연속살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3곳 이상의 개별적 장소에서 각각의 개별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로 살인에 대한 공상과 환상을 가지고 범행을 준비하면서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에도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는 경우를 연쇄살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Modus operandi(MO)의 의의

19세기 후반 알퐁스 베르틸론(Alphonse Bertillon)은 수사관들에게 범죄자들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을 하게 된다. 즉 “하늘아래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개체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Rhodes, 1956) 또한 로카르드(Locard)는 “사람이 어떤 물체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을 때 반드시 상호교류하는 물질 증거를 남긴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죄자는 반드시 범행과정에서 특정한 위치, 증거,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그 무엇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Safirstein, 1998: 4-5.)

Modus operandi(MO)는 method of operating을 뜻하는 라틴어로 범죄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의미한다.(Gross, 1924) 범죄자의 MO는 범죄 실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선택과 행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태이며 역동적⁴⁾이어서 변할 수가 있는(존 더글러스 외, 이종인 역, 1999: 357) 일종의 범행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범죄자의 Modus operandi(MO)는 범죄를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나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와 관계되는 범죄 동기나 인증(signature)⁵⁾측면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범죄자의 MO를 수사에 활용하는 이유⁶⁾로서는 범행수법을 통하여 미제사건과의 연관성을 추정

4) 가령 청소년은 첫 범행에서 기술을 완성하지 않는 한, 성인이 되어 가면서 범행수법이 바뀐다. 첫 범행을 저지르고 무사히 피해나가면 이를 바탕으로 범행수법이 진화하면서 더욱 잔인해진다거나 교활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MO는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범인 인증(offender signature)이란 범인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에 의거 범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독특한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범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성취하기위해 저지르는 행위로 이것은 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범인이 피해자를 조종하고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애원과 탄원을 받아내는 재미를 범행을 한다면 이것은 범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6) 범죄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있어서 Modus operandi(MO)은 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정보(선택, 절차, 기술)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상관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자가 특수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기술, 직업, 전문성, 지식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식(사건 이전 접촉이나 이전 관계)과 범행현장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지식 등이다.

하고 미제사건에서의 범행수법증거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범행수법을 비교함으로써 용의자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서의 범행수법 증거와 체포된 용의자의 범행수법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범행수법을 축적해 놓음으로서 미제사건에서의 용의자 인식과 수사적 측면에서 문제해결의 계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Weston & Wells, 1974 ; Lee et al, 1983)

2. Modus operandi(MO)의 요소

범행수법과 범죄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최선의 방책이며 종국적으로는 범인을 검거하는 첩경이다. 범죄자의 범행수법은 점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방법을 개선시켜 나간다. 즉 시간경과에 따라 진화, 발전하는 학습행동들로 구성된다.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범죄수법에 대하여 반성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더욱 시간을 오래 끌었어야 했다든지,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더 즐겼어야 했다든지, 범행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미숙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경험적 요소는 더욱 정교화되고 더욱 대담해지며 자신감과 여유를 가질수록 더욱 다듬어 질 수 있다. 반면에 과도한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자신을 과신한다든지, 범행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피해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면 정신상태가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범행 초반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던 여러 가지 뒷마무리로부터 다소 이완되어 현장에 많은 증거를 남기거나 완전범죄를 추구하는 행동이 무디어지게 된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수법을 진화시키든 또는 범행증거를 은폐하는데 실패하건 간에 이러한 범죄자의 범행 수법적 측면의 변화는 수사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 범죄자의 범행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자신의 정체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취하는 행위로 은행을 털 때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거나, 강간을 할 때 피해자의 눈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강도행위를 할 때 장갑을 낀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본 목격자를 살해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범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 취하는 행위로 피해자 조용히 시키기 위해 재갈을 물리거나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범행 후 자신이 안전하게 도주하기 위한 행위로 범행 중 훔친 차량을 이용하거나, 범행을 한 후 훔친 자동차를 처리하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가 도주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행위 등이다. 범행수법의 일반적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범죄자의 수는 얼마이며, 사전에 범행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였는가의 여부, 범행지역을 선정했는지, 범행지역으로 접근로의 선정, 범죄현장의 사전답사나 피해자에 대한 사전 조사여부, 범행 중 피해자와의 관련성, 무기사용,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사용여부, 피해자에 입힌 상처의 양과 질, 피해자를 죽인 방법, 사전행동의 양과 질, 피해자 의복이 발견된 지역과 위치,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지역과 위치,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이유로 범죄현장이나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물품여부, 범행현장으로의 접근과 이탈시 사용한 운송방법, 범행현장으로부터 도주방향이나 경로 등이다.(O'Connell & Soderman, 1936: 254-260)

3. 범행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범죄자의 범행수법은 학습된 행위의 결과로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범행수법은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자는 범행수법을 학습하기도 하지만 퇴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범행 도중 어떤 행위가 범죄에 더 효과적이란 것을 알게 되면 범죄자는 그러한 행위들을 다음 범죄에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점점 범행수법이 기술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범죄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범죄자의 정신상태가 더 예민해지거나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수사 활동의 영향에 의해

서 역으로 수사기관이 자신을 체포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요소에 의해서 범죄자의 범행수법은 초반에 비하여 조심스럽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범죄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성격,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범행수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Turvey, 2002: 235) 범행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한 범죄관련 자료의 습득

범죄자들은 범행수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에 접근하여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전문적 잡지, 강의 코스, 교과서, 도서관의 자료, 인터넷을 이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범행수법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범죄자의 범행수법이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과 유사성 또는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관련 방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범죄자의 마지막 단계의 범죄프로파일에 합쳐질 수 있는 것이다.

나. 전문적 직업 또는 전문적 경험

범행수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특수한 지식을 이용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전문 기술⁷⁾ 관련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지식은 범죄자의 범행수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범죄 경험과 확신

범죄자가 유사한 범죄를 거듭할수록 매끄럽게 범행을 하게 된다.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하기도 한다. 범죄행위를 하였던 경험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은 범행수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7) 전기공, 배관공, 통신, 컴퓨터, 군사, 형사사법 경력 등이 범행수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체포 경험

범죄자로서 체포되었던 경험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범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다. 통상 수감기간을 “학교 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리고 범죄경험이 적은 범죄자들이 이미 많은 범죄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범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교도소에서 갖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 몇 년간의 수형기간을 통해서 범죄자들은 원래 범행수법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마. 미디어

범죄자중 일부는 신문이나 뉴스 등 mass media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수사 활동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사건 관련 정보는 장차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적 측면의 통찰력을 범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 범죄자의 기분

범죄자의 범행 당일의 기분은 범행여부는 물론 범행수법에 영향을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정도나 방법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다. 그 결과 범 죄현장에서의 행동을 살펴보면 훨씬 덜 계획적이고 덜 통제된 행동증거가 노출될 수 있다.

사. 기타 요소

기타 범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상하지 않았던 요소들이다. 범죄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범죄가 성공할 것을 가정하고 범행을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범죄 현장, 피해자, 다른 외부적 영향들(기상, 목격자, 일정이 있는 행사 등)은 범죄자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된 영향 하의 피해자들, 예상치 못한 목격자들,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저항 등 기타요소는 범죄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제대로 대

처하지 못하게 하고 황급히 도주하거나 범죄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의도대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⁸⁾

4. 범행수법의 퇴화

범행수법은 범죄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언제나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범죄자의 정신상태가 악화, 주위 통제환경이 강화 등의 요소가 있고 점차로 수사기관이 자신을 체포하지 못할 것이란 교만함이 범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음에 따라 범행수법은 최초 보다 오히려 더 불완전하고 덜 기술적이 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⁹⁾

Ⅲ. 범죄 행각

1. 유영철 연쇄살인의 특징

유영철의 살인행각을 그 행위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영철의

8) an interrupted/incomplete offense(중단되거나/불완전한 범죄)는 범행을 완성하기에 MO행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an offense gone wrong(잘못되어버린 범죄)는 범죄자의 위협부담이나 범법적 지위를 증가시키는 비의도적이고, 비계획적인 MO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9) 1973년에서 1978년 사이에 5개 주에 걸쳐서 최소한 30여명을 살해한 미국의 연쇄살인범 Theodore(Ted) Bundy는 최초 매우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는 예의바르고 사교적이며 굉장히 표정이 풍부하고 종종 피해자들에게 약하게 보임으로써 도움을 청하는 척하면서 위협적이지 않게 접근했다. 때때로 차가 고장난 것처럼 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고, 종종 팔에 가짜 기부스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또한 그는 침대 여성을 피해자로 선택하고, 실제 범행에 앞서 그들을 스토킹하고 사체를 처리할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용의주도한 범행수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저히 악화되었다. 체포된 이후 탈옥에 성공하고 플로리다로 간 뒤 과음하거나 피해자의 사체로 의식을 치루기도 하고(인증적 행동), 사망 후 수일 동안 사체를 그대로 두기도 했다. 사체들을 즉시 처리하기보다는 피해자 사체의 머리를 감기거나 화장을 시키기도 했다. 점차적으로 그는 많은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동은 적게 하면서도 의식적 행동을 점점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범행수법은 조심스러웠던 초반의 범행수법에 비해 질적으로 매우 퇴화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살해방식은 사건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¹⁰⁾ 크게 시간적 측면에서 구분하였을 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유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침입살인, 무계획적 우발 살인 그리고 계획적 유인살인¹¹⁾ 단계이다. 계획적 침입살인에서 피해자가 3번 째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3명이다. 그러나 무계획적 우발살인과 본격적으로 계획적 유인살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1명씩 살해하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부유층 대상 계획적 침입살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범죄현장을 선택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행위이다. 두 번째는 부유층 대상범죄 이후 발생하였던 무계획적 우발 살인이다. 두 번의 무계획적 우발 살인사이에 대 여성 계획살인이 존재하긴 하나 이 건을 제외하고는 원래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 세 번째는 대(對) 여성 계획살인이다. 본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분실 핸드폰을 이용하여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끌어들이 살해한 후 사체를 분해하여 압매장한 범죄행위이다.

2. 단계별 살인동기

범행의 대상이 노인에서 여성으로 전환되었음은 바로 살해동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각 유형별 살해 동기에서 첫 번째 집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잘사는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다. 두 번째 집단에 대한 살해 동기는 피

10) 유영철에 의한 살인은 살인의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금전의 강취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 살인이기보다는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비정상적 살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단계에서 순간적인 격분이 다소 동기로 작용한 살인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사건을 분리하여 단지 피해자의 수와 살인이 발생한 현장의 수 만 고려한다면 단일살인(single homicide), 이중살인(double homicide), 삼중살인(triple homicid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을 분리해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전체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4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 장소에서 살해된 적은 없으므로 다중살인(mass homicide)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한 적도 없으므로 연속살인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3곳 이상의 개별적 장소에서 각각의 개별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살인에 대한 공상과 환상을 가지고 범행을 준비하면서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에도 심리적 냉각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연쇄살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1) 유영철의 범행수법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해자들이 순간적으로 자신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데 대하여 분노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을 통제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과 주도권을 쥌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노의 표현이었다. 세 번째 집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세상의 모든 여성에 대한 분노, 자신을 배신하여 자신에게 좌절을 안겨준 전 부인이나 동거녀를 대신한 일반 여성들에 대한 증오심이었다.

3. 단계별 살인행각

가. 부유층 대상 계획적 침입 살해

2003년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에 범행한 부유층 대상 범죄는 철저히 계획적이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즉시 부유층을 대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처지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유층이라고 결정한 뒤 임의로 그 책임을 불특정 부유층에게 돌리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3. 9. 24. 강남구 신사동 숙명여대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한 뒤 현장에 있던 280만원의 현금에는 전혀 손도 대지 않음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는 추정을 유도하였다. 그로부터 약 15일 정도 경과한 2003. 10. 9. 최초 범행 장소인 강남과는 전혀 반대 방향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주차관리원 고모씨 2층 단독주택에서 일가족 3명을 둔기로 살해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만 경과한 2003. 10. 16 에는 두 번째 범행 장소와는 반대이며 최초 범행 장소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최모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부인을 살해한 뒤에 현장에 있는 금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또한 2003. 11. 18에는 강북인 종로구 혜화동에서 2명을 살해 후 방화하였다.

나. 무계획 우발 살해

2004. 2. 26 에는 의류상가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라고 사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경찰이나.”고 빈정거리는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8회 가량 찰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주 정도 경과한 2004. 3. 15에는 집에서 전화방에 근무하는 여인을 살해하였으며 2004. 4.14에는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황학동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평소 단속에 적발되어 자주 경찰서를 출입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후환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를 월미도로 유인 후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

다. 대 여성 계획살인

유영철은 길에 뿌려진 출장 안마사 광고전단을 통하여 범행대상을 결정하였다.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종업원이 나오면 위조된 경찰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집에 들어 간 후에는 샤워를 하라고 욕실에 밀어 넣었고, 피해자들은 부패한 경찰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동쯤으로 치부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 쳐 살해하였다. 어떤 경우는 곧장 살해하지 않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어떤 사람에게 납치되었다거나, 고향부모에게 안부전화를 걸게 하였으며 고향에 내려가므로 더 이상 업소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 등을 녹음하였다. 이렇게 녹음한 것은 피해자 주변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한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살해시점을 속이고 납치된 것으로 위장하였다. 처음에는 바로 살해하였으나 용모가 마음에 드는 피해자와는 여러 시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살해하기도 하였다. 그런 후 물을 틀어놓고 튼과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조각냈다. 혈액은 물과 함께 하수도로 내려 보내고 조각난 사체를 비닐에 담고 비닐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봉원사 근처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이 때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담

왔던 비닐을 모두 수거하였다. 사체를 처리한 후에는 피해자가 다음 장소로 출장 안마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다른 지점에서 실종된 것으로 위장하기도 하였다.

4. 심리적 냉각기

각 단계별 심리적 냉각기를 살펴보면 1단계인 계획적 침입살인의 심리적 냉각기는 19일, 7일, 32일이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강남과 강북을 두 번에 걸쳐 왕복하고 있다.¹²⁾ 1단계인 계획적 유인 살인과 2단계인 무계획적 우발살인과의 심리적 냉각기는 2달 19일로서 계획적 침입살인의 심리적 냉각기에 비해 비교적 길다. 2단계의 무계획적 우발살인 2건이 발생하는 도중에 계획적 유인살인을 한 건 저질렀으며 앞으로 있게 될 본격적인 계획적 유인살인 즉 전형적인 연쇄살인단계의 징후를 보인다. 2단계의 1차 무계획적 우발살인과 계획적 유인살인과의 심리적 냉각기는 1달 9일이며 계획적 유인살인과 2차 무계획적 우발살인과의 심리적 냉각기는 29일이다. 2단계 무계획적 우발살인과 3단계 본격적인 계획적 유인살인과의 심리적 냉각기는 2달 18일로서 앞의 1단계 계획적 유인살인과 2단계 무계획적 우발살인의 심리적 냉각기와 매우 일치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3단계인 본격적인 계획적 유인살인 간의 심리적 냉각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짧다. 본격적인 계획적 유인 살인간의 심리적 냉각기는 2일, 6일, 4일 순으로 앞에서 보여주었던 어떠한 심리적 냉각기보다 짧음을 알 수 있다. 유영철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해하는 전형적인 연쇄살인에 대한 modeling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12) 결과적으로 경찰의 공조수사는 유영철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IV. 범행수법의 분석

1. 범죄자의 목적에 의한 행동분석

가. 정체 은폐를 위한 행동

부유층 대상 계획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강남과 강북을 오가며 경찰수사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특히 의도적으로 금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아 원한에 의한 범죄로 추정케 하였다. 혜화동 사건시에는 단순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망치로 집안의 소형금고를 부수고 곡괭이로 금고 자물쇠를 부수다가 실수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혀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혈액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한다. 황학동 노점상 살해시 피해자 손목에 수갑을 착용했던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고 손목을 절단하는 행동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유인 납치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한 남자에게 납치되었다.”는 통화를 하게 하여 살해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게 한 행위라든가 여성들을 살해 후 피해자 주변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한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살해시점을 속이고 납치로 가장하는 행위 등 역시 자신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다. 또한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를 화곡동으로 운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10초 후에 전화를 끊음으로서 화곡동에서 그 시간에 실종된 것으로 기망하였다. 오피스텔로 유인한 여성들에게 목욕을 시킴으로써 알몸으로 욕실에서 죽는 여성은 피 묻는 옷과 같이 거추장스러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사체 처리과정에서는 절단한 사체를 빨리 썩히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벗기고 사체조각들을 매장하였고 사체 암매장장소에서 지문이 남아 증거가 될 수 있는 비닐을 모두 수거한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입에 출장마사지 전단지를 삼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동 모두 자신의 정체를 은폐하려는 행위이다.

나. 범죄 실행

유영철은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였다. 계획적 침입살인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하자마자 망치로 살해하였고, 1차 무계획적 우발살인에서는 칼을 사용하여 살해하였다. 나머지 계획적 유인살인에서는 모두 망치를 사용하였다.

다. 도주

유영철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하고 방치하거나 황학동 노점상의 경우 월미도 주차장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하였다.

2. 범행수법의 일반적 형태에 의한 행동분석

가. 범죄자의 수

유영철의 단독범행으로 1명이다.

나. 사전에 범행을 하기 위한 계획여부

2건(이문동, 황학동 건)을 제외한 모든 범행은 계획적이다. 계획적인 범행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유영철은 범행도구로 팔각형의 5Kg 짜리 망치를 사용하였으며 휴대하기 쉽게 1미터 길이의 나무 손잡이를 떼어내고 짧은 고무 손잡이를 달았다. 망치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이음새부분을 석회로 발랐다. 그러나 철저히 살인과 금품갈취를 철저히 분리하여 범행하였고 따라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2건의 사례는 살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전에 범행을 하기위한 계획을 하지 않았다.

다. 범행지역의 선정

부유층 대상 계획적 침입살인은 모두 범행지역을 선정하였고 대 여성 유인살인의 경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살해하였으므로 범행지역을 선정하

였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사전에 범행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다.

라. 범죄현장의 사전답사나 피해자에 대한 사전 조사여부

부유층 대상 계획적 침입살인의 경우 범죄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였다. 예컨대 구기동 살인사건에서 본래 그 앞집을 목표로 정했는데 정원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고, 큰 개가 있어 한 시간 동안 주차장에 숨어 있다 포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전 조사는 하지 못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상대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답사나 피해자에 대한 사전 조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 여성 유인살인의 경우는 범죄현장이 자신의 오피스텔이었으므로 이미 현장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입력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통해 유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마사지 관련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외의 개인 정보는 피해자와 대면한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마. 무기사용

살해무기로는 주로 개인이 자신의 손에 맞도록 개조한 망치를 사용하였고, 칼도 일부 사용되었다. 톱은 최초 사체를 절단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사체 절단에 어느 정도 익숙하여 지자 주로 칼을 사용하였다.

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사용여부

부유층 대상 계획살인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즉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살해하였으나 나머지 범죄는 경찰신분증을 이용하여 기망, 유인하여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¹³⁾하고 칼이나 망치로 살해하였다.

사. 피해자에 입힌 상처의 양과 질

부유층 대상 계획적 침입살인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무계획 우발살인에서는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

13) 경찰신분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해온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선을 제압한 후 유인 살해하였으며 노상에서 살해한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을 경찰로 인정하지 않아 살해하였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다. 특히 황학동 노점상의 경우는 손목의 수갑자국을 의식하여 손목을 잘랐다. 나머지 대 여성 유인살인의 경우 망치로 살해 후 얼굴에 칼질을 하여 양념이 배도록 고기를 저미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사체를 절단하였다.

아. 피해자 살해 방법

대부분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내리쳐 단번에 살해하였으며 이문동 사건이나 황학동 사건 때에는 칼을 사용하였다.

자. 사전행동의 양과 질

살해이후 단계에서 사전행동 즉 사체처리를 위한 사전행동으로서는 FBI에서 유출된 사체 부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고 사체절단 방법을 익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다.

차. 피해자 의복이 발견된 지역과 위치

부유층 대상 계획적 침입살인과 1차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범행 현장이었으나 대 여성 유인 살인의 경우는 사체를 절단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복은 범행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하였다.

카.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지역과 위치

부유층 대상 계획적 침입살인과 1차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범행 현장이었고 황학동 노점상의 경우는 해안가로 유인하여 살해하였다. 그리고 대 여성 유인 살인의 경우는 사체를 매장한 봉원사 주변 야산이다.

타. 범죄 현장이나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물품여부

대 여성 유인 살인의 경우는 여성 발찌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 탈취하였으며 때로는 피해여성이 타고 온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파. 범행 현장으로의 접근과 이탈시 사용한 운송방법

통상 공공교통수단 및 도보로 접근 및 이탈하였으나 황학동 노점상 살인의 경우는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타고온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체를 절단한 후 처리하기 위해 봉원사 야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시를 이용하였다.

3. 범행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의한 행동 분석

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한 범죄관련 자료의 습득

유영철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공공의 적’¹⁴⁾ DVD 타이틀은 좋은 예이다. 영화에서 설경구가 경찰신분증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는 장면에서 클로즈업된 신분증을 보고 똑 같이 경찰신분증을 제작하여 돈을 뜯어내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체절단을 위하여 FBI에서 유출된 사체 부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고 사체 절단방법을 익힌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남대문 상가에서 3만원에 수갑을 구입한 행위도 이러한 요소에 해당된다.

나. 전문적 직업 또는 전문적 경험

유영철은 전문적 직업은 없었으나 교도소에서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 취득과 컴퓨터를 이용한 경험이 풍부하여 경찰신분증을 쉽게 위조 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연쇄살인범과는 달리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에 속했다.

다. 범죄 경험과 확신

체포 당시 수사관에게 자신이 찹질방 절도 건으로 걸려 있어 절도로 다시 입건되면 특가법에 걸려 최소 5년은 살아야 하니 점유이탈로 하자고 제의한 행동은 범죄 경험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는 살해목적의 범행과 금품 갈취 목적의 범행을 철저히 분리하였으며 자신의 단점인 간질발작을 활용하여 체포 후 조사 시 거품을 무는 간질

14) 설경구가 주연한 존속살인범죄를 다룬 범죄영화

발작을 3차례 연기함으로써 추가적인 발작을 염려한 수사관이 자신의 수갑을 풀어준 사이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범죄경험과 확신에서 비롯된 돌발 상황 대처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체포 경험

혜화동 사건시 단순강도로 위장하기위하여 가지고 있던 망치로 집안의 소형 금고를 3-4차례 내리치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곡괭이를 가지고 올라온 후 금고 자물쇠를 부수려다가 실수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혀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핏자국은 아무리 닦아도 약품에 반응한다는 6년의 교도소 생활을 통해 습득한 나름대로의 범죄 상식을 바탕으로 집에 방화하였고 황학동 노점상 살해 시 피해자 손목의 수갑상처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손목을 절단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을 살해하고 사체 암매장장소에서 지문이 남아 증거가 될 수 있는 비닐을 모두 수거하는 등의 행위는 그의 범죄지식이 축적된 결과로 보인다.

마. 미디어

신사동, 구기동 등 부유층 대상 계획살인을 저지른 후에 TV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보도를 꼼꼼히 챙겨보았으며 자신의 족혼과 관련된 260센티의 버팔로 신발과 관련하여 경찰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는 보도를 접하고 버팔로 신발을 밑창까지 잘라서 여기저기에 버리고 다녔다. 이외에도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TV나 신문을 통하여 모니터링하였다.

바. 범죄자의 기분

출소 후 이혼한 아내와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아내의 집을 찾았으나 아내와 아들에게 연민을 느껴 살해를 포기하고 그날 아내를 대신한 대타를 구해 살해하였는데 이날 희생된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칼집을 내 짓뭇졌다고 진술하였다. 2004년 2월 26일 저녁 동대문구 이문동에서는 경찰신분증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한 여성들을 위협, 돈을 갈취하기 위해 배회하던 중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판단한 전모씨에게 다가가, “나 경찰인데 너 술집

나가지.”라고 캐묻자 평범한 의류매장 직원이 전씨가 “미친놈 네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하여 이에 격분한 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망치가 아닌 칼을 이용했으며 밀폐된 공간이 아닌 노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특이한 케이스며 이날 이후 자신의 용돈 공급처였던 유흥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살인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¹⁵⁾

사. 기타 요소

기타요소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된 영향 하의 피해자들, 예상치 못한 목격자들,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저항 등 요소로 범죄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황급히 도주하거나 범죄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의도대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¹⁶⁾

자신을 경찰로 인정하지 않고 저항한 이문동 사건이나 자신의 신분을 의심한 결과 살해되었던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4. 범행수법의 퇴화

유영철의 범행수법은 점차 냉각기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점차로 수사기관이 자신을 체포하지 못할 것이란 교만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범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출장 안마사 광고전단이 다양한 디자인에 다른 번호로 인쇄된 것이 결국 동일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커다란 실수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범행 장소를 바꾸지 않고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업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유형의 유인, 납치 살해로 이어지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살인이 계속됨에 따라 냉각기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조심스러운 면을 결여하는 등 범행수법의 퇴화를 보이고 있다.

15) 이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으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16) an interrupted/incomplete offense(중단되거나/불완전한 범죄)는 범행을 완성하기에 MO행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an offense gone wrong(잘못되어버린 범죄)는 범죄자의 위협부담이나 범죄적지위를 증가시키는 비의도적이고, 비계획적인 MO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V. 맺는 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지만 그렇다고 모두 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지닌 채 학교와 사회, 이웃으로부터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다.(로버트 K. 레슬러, 1994 : 103) 살인을 촉발시키는 범행 전 스트레스는 실직, 결별, 금전적 문제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매일 받는 스트레스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유익하고 정상적인 정신 발달의 틀 안에서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나 잠재적인 살인범들은 애초부터 그 틀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에 대처하는 사고방식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 (로버트 K. 레슬러, 2004: 167)

범인은 반드시 범행현장에 자국을 남긴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범죄 현장이며 그곳에는 가장 훌륭한 증거들이 있다. 범행수법은 인간의 행동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해결요소이다. 한 범죄자의 범행수법은 공개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모방과 개선을 통해 보다 진화되고 악랄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행동은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살인마들은 통상 범죄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며 자만심에 빠져 퇴화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 그러한 실수나 퇴화된 행동도 집요하고도 치밀한 수사관의 현장 감식 능력이나 수사 감각, 그리고 축적된 자료 없이는 수사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범행수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는 한명의 연쇄살인범이 저지른 여러 살인 사건들을 이용하여 각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연구, 어떠한 범죄 행동들이 연쇄 범죄를 연결 짓는데 신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살인에서의 성적 동기와 행동 등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다.(김민지, 2004: 84)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쇄살인 범죄자의 범행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민지(2004). '미국 연쇄살인범죄의 특징 및 대책'. 『한국 법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법심리학회.
- 김용화(2002). 「한국의 살인범 profiling 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대학원.
- 곽대경(2001).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3:1-21.
- 김종률(2002). 『수사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광배(2001). '범죄자 유형파악(Criminal Profiling)'.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발표자료 모음집』, 한국심리학회.
- 박광배(2001). '범죄와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모음집』, 한국심리학회.
- 이수정 외(2004). '유영철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 『한국 법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법심리학회.
- 로버트 K. 레슬러, 황보석 역 (1994). 『FBI 심리분석관』. 서울: 미래사.
- 로버트 K. 레슬러, 황정하 외 역(2004).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서울: 바다출판사.
- 존 더글러스 외, 이종인 역(1999). 『마음의 사냥꾼』. 서울: 김영사.

■ 외국문헌

- Gross, H.(1924). *Criminal Investigation*, London: Sweet & Maxwell.
- Holmes, Rolald M. & Stephen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U.S: Sage Publication, Inc.
- Holmes, Rolald M. & Stephen T. (1998). *Serial Murder*(2nd ed.), Thousand Oak, CA: Sage.
- Lee, H., DeForest, P., and Gaensslen, R.E. (1983). *Forensic Science: An Introduction to Criminalistics*, New York: McGraw-Hill.
- O'Connell, J. and Soderman H. (1936). *Modern Criminal Investigation*, New York: Funk & Wagnalls.

- Ressler, R., Burgess, A. & Douglas, J. (1988). *Sexual Homicide: Patterns, Motives and Procedures for Investigations*, Lexington, MA.
- Rhodes, H. (1956). Alphonse Bertillon: *Father of Scientific Detection*, New York: Abelard Schuman.
- Keppel Robert D. & Birnes William J. (2003). *The Psychology of Serial Killer Investig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Saferstein, R. (1998). *Criminalistics: An Introduction to Forensic Science*,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Turvey, Brent E. (2000). "Modus Operandi," *Encyclopedia of Forensic Science*, London: Academic Press.
- Turvey, Brent E. (2002). *Criminal Profiling*, New York: Academic Press.
- Weston, P. and Wells, K.(1974). *Criminal Investigation: Basic Perspectiv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BSTRACT

A Study on Modus Operandi of Serial Killer -Centering on Ryu Young Chul's case-

Oh, Yoon Sung

2004 summer, most of Korean were shocked from serial killer Ryo young chul's criminal behavior. He had kept anger to society and selected the victim randomly. He killed many females and senior persons. Korean National Police's investigation method to homicide depend on traditional homicide investigative methods. But serial killer's criminal behaviour is evolving frequently. Therefore traditional investigative method is no effective to serial homicide anymore. If traditional investigative method is old version virus vaccine, serial killer's criminal behaviour is newly appeared computer virus. Fortunately all of criminal has modus operandi independently. Any person *comes into contact* with an object or another persons, a cross-transfer of physical evidence happens. In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escape from confrontation with serial killer. It can be prospect that more severe copycat serial killer will appear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 Ryo young chul's criminal behavior, I'll try to analyse the serial killer's modus operandi through various aspects.

【Key Words : serial killer, modus operandi, criminal psychology】